이주요 아카이브

핵심 주요
Jewyo's Archive



2021년 <러브유어디포_강남파빌리온> 전경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비조사구평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작가 소개

이주요(1971~)는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일상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주어진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발화하면서 사회의 중심(제도 또는 시스템)과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잠재된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은 사변적이거나 작가 스스로가 지닌 딜레마 혹은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작가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익숙한 규범에 대한 저항, 사회적 미술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도그마간의 충돌을 자신만의 언어로 그려낸다. 이를 위해 이주요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시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규범들이 만들어 낸 대립과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국내외 활발히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온 이주요는 아인트호벤 반아베 미술관(Van Abbemuseum),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MMK, Museum für Modern Kunst Frankfurt), 아트선재센터, 뉴욕 퀸스뮤지엄(Queens Museum)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고,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07 이스탄불 비엔날레, 2012 파리트리엔날레, 2008/2016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또한 그는 201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 2010년 양현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주요, 낭송 타자기, 2013
파리트리엔날레 전시 전경.

작가 약력

개인전

2023 <Of Hundred Carts and On>, 바라캇컨템포러리, 서울
2021 <러브유어디포_강남파빌리온(Love Your Depot_Gangnam Pavilion)>
2020 <2020 KCCUK Artist of the Year: 러브유어디포_런던>,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19 <2019 올해의 작가상: 러브유어디포(Love Your Depot)>,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7 <십년만 부탁합니다>, 퍼포먼스, 남산예술극장, 서울
2017 <Dawn Breaks>, 더쇼룸, 런던
2017 전시 및 퍼포먼스 <Dawn Breaks>,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5 <Commonly newcomer>, 퀸즈뮤지엄, 뉴욕
2013 <나이트 스튜디오>,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3 <Walls to Talk to>,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2013 <Walls to Talk to>, 반아베미술관, 아인트호벤
2010-2011 이태원 스튜디오 <나이트 스튜디오> 전시

그룹전

2016 제11회 광주비엔날레 <Dawn Breaks> 참가
2012 3번째 파리 트리엔날레 초대 작가 참여
2008 제7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2007 이스탄불비엔날레 참여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수상

2019 <2019 올해의 작가상: 러브유어디포(Love Your Depot)>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0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20 KCCUK Artist of the Year: 러브유어디포_런던> 수상
2010 양현미술상 수상
2000 블룸버그, 런던 <뉴 컨템포러리즈 2000>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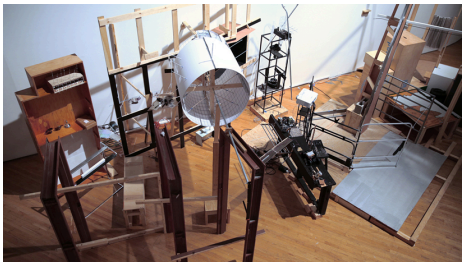
러브 유어 디포(Love Your Depot), 2019-2023



2021년 <러브유어디포_강남파빌리온> 전경 사진

<러브 유어 디포(Love Your Depot)>는 이주요가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전시에서 처음 소개한 예술 창고 시스템이다. '전시 이후의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작품의 생산, 보관,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작가 개인과 사회가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도운 브레익스(Dawn Breaks), 2015-2017



2015 퀸즈뮤지엄 <도운 브레익스> 설치전경

<도운 브레익스>는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전(Night Falls Dawn Breaks)'를 줄여 쓴 제목이다. 이는 정확하게 규정된 사회적 언어가 잠들고, 기존 논리에 속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지칭한다. 두 작가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 스토리텔링 장치들을 만들고 오브제들의 움직임을 구체적 타임라인에 놓아 물리적 사물 간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나이트 스튜디오, 2013



2010, 나이트 스튜디오, 설치 전경

이주요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했던 이태원오픈하우스프로젝트 <나이트 스튜디오>때 만든 작품들을 가져가 각 미술관이 놓여있는 도시의 삶의 조건에 맞게 재제작했다. 반아베미술관,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 후 아트선재센터로 전시를 가져와 작품이 탄생했던 이태원 작업실을 기념하는 <나이트 스튜디오>라는 제목으로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였다.